

##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기

유 양 경<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이제는 한 인간의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점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Hong, 1992). Ko(1996)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노인의 사기(morale) 수준은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대한 한 지표인 것이다(Ryden, 1984). 또한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기술한 많은 연구를 보면 낮은 자존감, 낮은 사기, 우울, 활발치 않음(inactivity), 및 전반적인 적응수준의 손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간호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Tennant, 1990)는 것이다.

McDowell과 Newell(1996)에 따르면 사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용기, 질서, 자신, 의욕, 기꺼이 어려움을 견디려는 마음들과 관련된 정신상태이며, 특히 노인의 인지·정서적 적응 영역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사기 척도의 창안자인 Lawton(1977)은 이를 "자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즉 주위 환경내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있다고 느끼고, ...생활속에서 접하는 사람들과 일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으면서... 개인적 욕구와 환경이 제공해주는 것들 사이에 일치를 느끼며,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생활만족도 개념과 같이 전반적 삶에 대한 종합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반면, 자아용납, 낙천적 태도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Hong,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라는 단어는 종종 문헌에서 주관적인 만족감을 언급하기 위하여 생활만족, 적응, 및 행복이라는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기란 개인의 총체적인 안녕(general well-being)에 있어서 주된 중요성을 가지므로(Goldberg & Fitzpatrick, 1980), 이렇듯 사기의 개념화와 측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Ryden & Knopman, 1989)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안녕증진을 위한 인간의 총체적인 면에 가치를 두는 간호학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Magilvy(1985)는 노인의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건강과 사회적 지지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적절히 정의함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지지 없이는 개인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불구와 만성질환의 위협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지자들이 감소하게 되는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라는 쟁점은 극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Phillips, 1991).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체계들은 공식적·비공식적 지지구조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지지자들의 수를 불문하고 가족과 그 밖의 비공식적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사회적 지지원이다(Phillips, 1991). Larson

주요어 : 사회적 지지, 사기

1)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투고일: 2003년 8월 26일 심사완료일: 2004년 3월 22일

(1978)에 의하면 실제로 노인들의 은퇴 이후의 생활세계는 사회중심에서부터 가정이나 이웃, 사회클럽, 종교단체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중요한 타자도 직장동료로부터 배우자, 자녀, 친척 혹은 친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므로써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Chae & Oh, 1992). 결국 사회적 지지에 있어 지지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지지의 양 뿐만 아니라 지지의 형태와 지지의 근원도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Thoits, 1982).

이상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곧 성공적인 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삶의 질의 지표로써 사기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특히 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관련 국내의 연구로는 재미 한인 노인의 사기에 대한 Moon(1996)의 연구, 친구관계와 사기에 대한 Lee(1998)의 연구,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문제 및 사기에 대한 Song(2002)의 연구, 및 사기에 대한 의미를 기술한 Bae(2001)의 연구 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 관련 논문은 대체로 무력감, 삶의 질 등과의 관련성을 다룬 조사연구들(Chae & Oh, 1992; Cho, 1995; Park & Suh, 1999)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외국의 간호연구자들은 통계와 사기와의 관계나 선택,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기와의 관계(Chang, 1978; Pohl & Fuller, 1980; Ryden, 1984; Ryden & Knopman, 1989)를 탐색해왔고, 활동요법(Goldberg & Fitzpatrick, 1980)이나 유머 프로그램(Tennant, 1990)이 노인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뿐, 사회적 지지와 사기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재가노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를 파악하여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노인의 사기 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노인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의 목적

- 노인의 사기와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다.
-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3개 중소도시(재가노인 규모: 약 98,000명)의 노인정 15곳과 노인복지회관 4곳에 다니는 재가노인을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아래 기준에 적합한 203명을 임의표출하였다. 대상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면접에 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65세 이상인 자이다.

### 연구도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결혼상태, 동거유형, 생활형편, 직업, 한달용돈 및 용돈수준 등과 함께, 관련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하여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 가입한 단체, 인지된 건강상태, 의지대상 및 자녀와의 친밀정도 등을 포함시켰다.

#### •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 정보, 물질 및 평가적 지지 등의 4개 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문헌에서 사회적 지지의 형태 뿐만 아니라 지지의 근원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와 이웃, 및 친지 등의 지지원별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지지원별로 보면 가족, 친구와 이웃, 및 친지의 지지는 각각 Cronbach's  $\alpha = .92, .93$  및  $.96$  이었고 지지유형별로는 정서, 정보, 물질 및 평가적 지지가 각각 Cronbach's  $\alpha = .90, .85, .82$  및  $.86$  이었다.

#### • 사기 측정도구

Lawton(1975)이 개발한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PGCMS)을 Moon(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7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Lawton의 점수부여 원칙을 수정하여 긍정문항은 '예', '잘 모르겠음' 및 '아니오'에 각각 2점, 1점 및 0점을, 부정문항은 역산처리한 3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2003년 4월~6월까지 본 연구자 및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5명의 간호대학생들이 먼저 전화를 통해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 직접 방문하여 연구관련 제반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노인에게 직접 질문지를 읽어주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40분~1시간이었고, 총 203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로 분석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변수들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에 대해서는 Scheffé 검정법을 이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3개의 수준인 결혼상태에서 빈도가 1명으로 나타난 수준이 있어 이를 missing 처리한 후 t-test로 검정하였다.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할 독립변수들 중 명목변수들은 가변인으로 처리한 다음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C도에 속한 3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한국 노인 전체로 일반화함에 있어 제한이 있다.
-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이 보이는 인지능력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65-69	66	32.5	Monthly pocket money (thousand won)	100 and below	70	34.5
	70-74	51	25.1		200 and below	43	21.2
	75-79	41	20.2		300 and below	38	18.7
	80 and over	45	22.2		310 and over	52	25.6
Gender	Male	87	42.9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enough	43	21.2
	Female	116	57.1		usual	71	35.0
Educational level	none	54	26.6		not enough	89	43.8
	elementary school	82	40.4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family	yes	65	32.0
	above middle school	67	33.0		none	138	68.0
Religion	none	35	17.2	Joining an organization	no	72	32.9
	Protestant	84	41.4		yes	131	67.1
	Catholic	29	14.3	Perceived health status	bad	80	39.4
	Buddhism	46	22.7		average	50	24.6
etc.	9	4.4	good		73	36.0	
Marital status	married	99	48.8	Subject to depend upon	spouse	80	39.4
	widowed	103	50.7		children	120	59.1
	etc.	1	0.5		friend	3	1.5
Living arrangement	only an old couple	61	30.0	Degree of close relationship with own children	not close	24	11.8
	with married son	81	39.9		close	114	56.2
	with married daughter	21	10.4		very close	65	32.0
	with unmarried children	22	10.8	Number of children	under 4	68	33.5
	etc.	18	8.9		5	56	27.6
			above 6		79	38.9	
Perceived economic status	make a good living	15	7.4	Occupation	yes	40	19.7
	average	163	80.3		none	163	80.3
	make a poor living	25	12.3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성별은 여자(57.1%)가 많았고, 평균연령은 73.8세이였으며, 초등학교이하가 전체의 3%를 차지하였고 82.8%의 노인이 종교가 있었으며 결혼상태는 독신 50.7%,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는 48.8%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에서는 39.9%가 결혼한 아들과 살고 있었고 그 다음이 노부부만 사는 경우로 30.0%를 차지하였으며 생활형편에서는 80.3%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대부분(80.3%)이 직업이 없었다. 한달용돈은 평균 27.3만원이었고, 용돈수준에서는 43.8%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68.0%의 노인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39.4%가 나쁘다, 36.0%가 건강하다고 인지하였으며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 59.1%, 배우자 39.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5명이었고 자녀와의 친밀도는 대부분(88.2%)이 가깝다고 지각하였으며 노인의 64.5%가 친목회나 노인회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Table 1>.

###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를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노인의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50점으로 나타나, 노인들은 보통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원별로 보면 가족 지지가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유형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는 3.24점으로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정도는 평균 0.9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사기를 지각하고 있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orale in elderly (n=203)

Items	Mean±SD (min~max)
« Sources of Social Support »	
family	4.14±0.56 (2.40~4.96)
friends and neighbors	3.36±0.63 (1.36~4.96)
relatives	3.00±0.85 (1.20~4.96)
« Types of Soci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3.58±0.53 (1.90~4.93)
informational support	3.45±0.58 (1.87~5.00)
material support	3.24±0.60 (1.33~5.00)
appraisal support	3.63±0.61 (2.13~5.00)
Social Support (Total)	3.50±0.50 (1.92~4.96)
Morale	0.94±0.49 (0.00~1.94)

###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기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 $r=.479$ ,  $p=.000$ )를 나타내어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기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이 지각한 사기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원별로 상관관계를 보면, 3가지 지지원이 모두 사기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족과 친지의 지지가 사기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4가지 지지유형도 모두 사기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물질적 지지가 사기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major variables (n=203)

	Morale r(Sig.)
Social Support (Total)	0.479(.000)
sources of support	
support by family	0.385(.000)
support by friends and neighbors	0.265(.000)
support by relatives	0.400(.000)
types of support	
emotional support	0.437(.000)
informational support	0.363(.000)
material support	0.507(.000)
appraisal support	0.373(.000)

###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

일반적 특성 중에서 결혼상태( $t=4.00$ ,  $p=.000$ ), 동거유형( $F=2.92$ ,  $p=.022$ ), 생활형편( $F=16.62$ ,  $p=.000$ ), 직업( $t=2.98$ ,  $p=.003$ ), 한달용돈( $F=5.45$ ,  $p=.001$ ), 용돈수준( $F=19.64$ ,  $p=.000$ ), 가족부양책임( $t=2.72$ ,  $p=.007$ ), 건강인지도( $F=9.92$ ,  $p=.000$ ), 의지대상( $F=4.80$ ,  $p=.009$ ) 및 자녀와의 친밀도( $F=20.37$ ,  $p=.000$ )에 따라 사기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Scheffé 검정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사별로 독신인 노인들보다 사기가 높았고, 부부만 사는 노인들이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사기가 높았으며, 생활형편에서는 못산다고 응답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잘산다, 보통이다)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활형편이 좋을수록 사기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다. 직업이 있는 그룹과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사기가 더욱 높았고, 한달용돈은 31만원이상인 노인들이 10만원이하인 노인들보다 사기가 높았으며,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충분하다, 보통이다)보다 사기가 낮았다.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높은 사기 정도를 나타내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기가 더욱 높았고,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라고 응답한 노인들

<Table 4> The degree of the moral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é test
Marital status	married	1.08±0.50	4.005	.000	
	widowed	0.81±0.44			
	etc.				
Living arrangement	only an old couple <sup>1)</sup>	1.03±0.49	2.920	.002	1) > 3)
	with a married son <sup>2)</sup>	0.94±0.49			
	with a married daughter <sup>3)</sup>	0.63±0.36			
	with unmarried children <sup>4)</sup>	1.01±0.53			
	etc. <sup>5)</sup>	0.95±0.42			
Perceived economic status	make a good living <sup>1)</sup>	1.09±0.42	16.624	.000	1), 2) > 3)
	average <sup>2)</sup>	1.00±0.47			
	make a poor living <sup>3)</sup>	0.46±0.33			
Occupation	yes	1.15±0.48	2.98	.003	
	none	0.89±0.48			
Monthly pocket money (thousand won)	100 and below <sup>1)</sup>	0.77±0.52	5.449	.001	4) > 1)
	200 and below <sup>2)</sup>	1.00±0.45			
	300 and below <sup>3)</sup>	0.99±0.43			
	310 and over <sup>4)</sup>	1.10±0.45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enough <sup>1)</sup>	1.21±0.42	19.644	.000	1), 2) > 3)
	usual <sup>2)</sup>	1.05±0.46			
	not enough <sup>3)</sup>	0.73±0.46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family	yes	1.08±0.52	2.72	.007	
	none	0.88±0.46			
Perceived health status	bad <sup>1)</sup>	0.79±0.44	9.919	.000	1) < 3)
	average <sup>2)</sup>	0.92±0.46			
	good <sup>3)</sup>	1.13±0.50			
Subject to depend upon	spouse <sup>1)</sup>	1.06±0.51	4.796	.009	1) > 2)
	children <sup>2)</sup>	0.88±0.46			
	friend <sup>3)</sup>	0.53±0.42			
Degree of close relationship with own children	not close <sup>1)</sup>	0.44±0.39	20.370	.000	1) < 2), 3)
	close <sup>2)</sup>	0.95±0.45			
	very close <sup>3)</sup>	1.12±0.46			

이 자식이라고 답한 노인들보다 사기가 높았다. 자녀와 가깝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그룹과 다른 두 그룹(가까운 편이다, 매우 가깝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자녀와의 친밀도가 클수록 사기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한 사회적 지지(지지원×지지유형

[3×4])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기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19.6%)였고, 여기에 친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용돈만족도, 건강인지도, 친밀감 지각정도, 및 친구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포함되어 사기에 대한 설명력은 총 43.3%로 나타났다<Table 5>.

판 의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morale (n=203)

Independent Variables	Beta	t	Sig.	R <sup>2</sup>	F	P
material support by family	.241	4.012	.000	.196	24.818	.000
emotional support by relatives	.194	3.293	.001	.295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240	- 4.209	.000	.356		
perceived health status	.172	3.083	.002	.398		
level of intimacy with one's children	.169	2.750	.007	.413		
material support by friends and neighbors	.151	2.621	.009	.433		

본 연구에서 노인은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다르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노인이 지지원 가운데 가족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한 점은, 인생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획득된다고 한 Cobb(1976)의 견해나 일반가정노인의 주된 지지제공자는 가족이라고 밝힌 Chae와 Oh(199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더욱이 유교적 전통인 가족중심주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노인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사기를 지각하였다. 본 결과는 사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측정수준이 서로 달라서 평균점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100으로 환산한 후 비교해보면 대체로 본 연구의 노인보다 사기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재미 한인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Moon(1996)의 연구에서만 사기의 평균이 7.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외에 Lee(1998)와 Song(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적 사기가 각각 7.87점(...Lawton(1975)의 PGCMS에서 3개 문항이 제외됨)과 9.87점으로 나타나 사기를 중간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연구와 상이한 점은 Lee(1998)와 Song(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인구층이 포함되었고 그 비율 역시 30% 정도를 차지하며 두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에 따라 그들이 지각하는 사기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이 낮을수록 사기의 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제외된 65세 미만인 노인들의 사기 정도가 이들 두 연구의 사기 평균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연령 변수가 사기 정도에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p=.050$ )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결국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연령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사별로 독신인 노인들보다 사기를 높게 지각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1998)와 Song(2002)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일상적 사기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함으로써, 노령기 적응에 있어서 배우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Yoo(Hong, 1992에 인용됨)는 배우자 유무 그 자체만으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노인과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배우자 유무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생존이 노후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지만 별거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생존여부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

곧 결혼상태 변수는 동거형태 등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기의 정도를 확인하는 추후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거유형에서는 노인부부만 사는 노인들이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사기를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서로 함께 살기보다는 이웃에 살기를 더욱 선호한다(Eliopoulos, 1997)는 견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이 자녀들 특히 장남과 동거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 와서는 노후에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Kivett와 Learner(1982)의 연구에서도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Kiefer 등(1985)은 재미 한인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거나 배우자끼리만 사는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이들보다 사기가 떨어지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거유형에 따른 사기 정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추후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의 생활형편이 좋을수록 사기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별로 생활형편이 좋은 노인일수록 일상적 사기가 높았고, 집단별로 살펴보면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 생활형편이 좋은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Lee(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곧, 경제적으로 안정된 정도는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는 노인이 사기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사회·경제상태의 주요 구성요인의 하나로 직업에 대한 만족이 안녕상태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Rice, Near와 Hunt(1979)의 견해와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65세를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한 사람보다 덜 외롭고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과 성격상의 요인이 후년기의 사기와 작업능력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Broomley(Yoo, 2003에 인용됨)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는바, 이후의 연구에서는 직업유무에 따른 사기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달용돈에서는 31만원이상인 노인들이 10만원이하인 노인들보다, 또 용돈이 충분하다고 인지할수록 사기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Choi, Kim, Byon과 Won(1990)의 연구에서도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노인군이 기쁨, 행복, 불안, 우울 등의 정서건강 점수가 가장 좋았고, 용돈 부족정도가 심할수록 정서건강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부양책임이 있는 노인들이 자기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노인되어감에 대한 Yoo(2003)의 연구에서 “뫓인가 책임질만 한 것일 이렇게 면제시켜 줄 적에 ‘아 내가 벌써 무용지물이 되었구나’ 그런 섭섭함이 드는거여” 라는 정보제공자의 진술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의미있는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부양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한 추후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자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Song(2002)과 Lee(1998)의 연구, 및 스스로 평가한 건강상태는 자기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유의미하게 자기 높았다고 보고한 Moon(199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의지대상에 있어서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자식이라고 답한 노인들보다 자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 변수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없어서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본 변수와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노인이 자녀와 친밀도가 클수록 자기 높게 지각하였다. 예컨대 재미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Moon(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노인일수록 유의미하게 자기 높았음을 보고하면서 재미 한인노인의 생활만족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는 결정적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가 전생애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지만 노령기에 접어든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유대관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 Kim, 1987)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 은퇴로 인하여 직장 사회에서 물러나면서 교체범위가 좁혀진 노인들에게는 가족생활 특히 자녀와의 친밀감이 노인의 자기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기 정도와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 중 선행연구에서 자기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성별, 교육수준, 및 사회활동에의 참여 정도 등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와 정적인 상관성이 확인된 것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좋은 개인은 여러 종류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고, 자기도 높으며, 자신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Lee(Chac & Oh, 1992에 인용됨)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와의 상관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지지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난 점은 비슷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노인의 56.6%가 자녀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지지 내용은 주로 물질적인 지지

였고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정서적 지지였다고 밝힌 Bae(1993)의 연구가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닿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자기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노인의 자기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노인의 자기 높이는 방안으로는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물질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는 노인이 지각한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자기를 19.6% 설명해주었고 여기에 친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용돈만족도, 건강인지도, 친밀감 지각정도, 및 친구로부터의 물질적 지지를 추가하면 자기를 43.3% 정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기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임을 시사하며, 그 중 지지원에 있어서는 가족이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적 지지가 자기를 가장 높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노인의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관한 Suh(198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은 노인의 정신·신체적 복지 모두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과, 한국에서의 가족은 여전히 노인부양에 있어서 도구적인 원조와 애정적인 지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근원으로 남아 있다는 Hong(1992)의 진술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친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자기에 대해서 9.9%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이어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다른 어느 관계보다 더욱 강화되는데 성인기 초기와 중년기에는 형제자매간이 소원해지다가 노년기에 이르면 강한 결속이 재확립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견해 (Eliopoulos, 1997)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예측변인들 중 용돈만족도는 6.1%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가 노인의 경제적 상태라는 보고(Song, 2002)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건강인지도는 노인의 자기를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노인의 일상적 자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Lee(1998)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친구로부터의 물질적 지지는 노인의 자기를 2% 정도로 설명해주었는데, 이는 비친족 관계망의 하나인 친구관계가 노인의 일상적 자기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적 자원임을 규명한 Lee(1998)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두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자기에 대한 설명력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용돈만족

도, 건강인지도 및 친밀감 지각정도가 노인의 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서 이와 함께 용돈이 충분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며 자녀와 가깝다고 느끼는 노인들의 사기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노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를 파악하여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지지원파 지지유형에 따른 사기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 중소도시의 재가노인 203명을 대상으로 Park(1985)의 사회적지지 도구와 Lawton(1975)의 사기척도를 일부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이 지각하는 전체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다, 지지원별로는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유형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는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이 지각하는 사기는 평균 0.94점으로 나타났다.
-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기 정도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지각한 사기에 대하여 3개의 지지원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가족과 친지의 지지가 사기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4개의 지지유형도 모두 사기와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물질적 지지가 사기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 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결혼상태, 동거유형, 생활형편, 직업, 한달용돈, 용돈수준, 가족부양책임, 건강인지도, 의지대상 및 자녀와의 친밀도에 따라 사기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 노인의 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19.6%)였으며, 여기에 친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용돈만족도, 건강인지도, 친밀감 지각정도 및 친구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포함되어 사기에 대한 설명력은 총 43.3%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사기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은 물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사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특히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사기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노인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물질적 지

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간호 실무,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간호실무 측면에서, 노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자원 중에서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호현장에서 노인의 가족과 친지를 중요한 지지체계로서 인정함은 물론, 이들 스스로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간호교육 측면에서, 노인의 사기와 관련성이 높은 지지원으로 확인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지유형인 물질적·정서적 지지의 중요성과 함께,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노인간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간호연구 측면에서, 한국 노인에 적합한 사기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ae, S. W., & Oh, K. O. (1992).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home residents and institution residents). *J Korean Acad Nurs*, 22(4), 552-568.
- Choi, Y. H., Kim, M. S., Byon, Y. S., & Won, J. S. (1990). Health Status of Elderly Person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3), 307-32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e of Life Stress. *Psychosom Med*, 38(5), 300-314.
- Eliopoulos, C. (1997). *Gerontological Nursing* (4th ed.). New York : J. B. Lippincott.
- Goldberg, W. G., & Fitzpatrick, J. J. (1980). Movement Therapy with the Aged. *Nurs Res*, 29(6), 339-346.
- Hong, S. J. (1992). *A comparative study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Korean elderly in Korea and in Americ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 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Kanacki, L. S., Jones, P. S., & Galbraith, M. E. (1996).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Widows and Widowers. *J Gerontol Nurs*, 22(2), 39-45.
- Kiefer, C. W., Kim, S., Choi, K., Kim, L., Kim, B. L., Shon, S., & Kim, T. (1985). Adjustment Problems of Korean American Elderly. *Gerontologist*, 25(5), 477-482.
- Kim, J. S. (198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vett, V. R., & Learner, R. M. (1982). Situational Influences



- on the Morale of Older Rural Adults in Child-Shared Housing: a Comparative Analysis. *Gerontologist*, 22(1), 100-106.
- Ko, S. D. (1996). *An analyt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Larson, R.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 Gerontol*, 33(1), 109-125.
- Lawton, M. P. (1977). "Morale: What Are We Measuring?" In C.N. Nydegger (ed.), *Measuring Morale: A Guide to Effective Assessment*. Washington, D. C. : Gerontological Society.
- Lee, J. A. (1998). *Friendship and morale of Korean elderly*.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Magilvy, J. K. (1985). Quality of Life of Hearing-Impaired Older Women. *Nurs Res*, 34(3), 140-144.
- McDowell, I., & Newell, C. (1996). *Measuring health*.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Moon, A. L. (1996). Morale among Korean American Elders Living Alone or with a Spouse Only and Its Correlates.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6(1), 96-109.
- Palmore, E., & Luikart, C. (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 Health Soc Behav*, 13(1), 68-80.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Phillips, L. R. (1991). Social support of the older client. In W. C. Chenitz, J. T. Stone, & S. A. Salisbury, *Clinical Gerontological Nursing : A guide to advanced practice*(pp. 535-545).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mpany.
- Rice, R. W., Near, J. P., & Hunt, R. G. (1979). Unique variance in job and life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work-related and extra-workplace variables. *Human Relations*, 32(7), 605-623.
- Ryden, M. B. (1984). Morale and Perceived Control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Nurs Res*, 33(3), 136.
- Ryden, M. B., & Knopman, D. (1989). Assess Not Assume Measuring the Morale of Cognitively Impaired Elderly. *J Gerontol Nurs*, 15(11), 27-32.
- Shin, M. H. (1996).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Master's thesis,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onju.
- Song, Y. J. (2002). *The relationship among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 problem and the morale in the community residing elderly*. Master's thesis,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of Korea, Asan.
- Suh, M. K. (1989). *Social support and the elderly's mental well-being in modernizing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Tennant, K. F. (1990). Laugh it Off The Effect of Humor on the Well-being of the Older Adult. *J Gerontol Nurs*, 16(12), 11-17.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 Health Soc Behav*, 23(2), 145-159.
- Wolk, S., & Telleen, S. (1976).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Residential Constraint. *J Gerontol*, 31(1), 89-98.
- Yoo, Y. G. (2003). *An ethnographic study of becoming an elder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 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orale of the Elderly Staying at Home

Yoo, Yang-Gyeong<sup>1)</sup>

1)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orale in the elderly. **Metho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from April, 2003 to June, 2003 on 203 elderly. The data was analyzed with a SPSS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done. **Result:**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moderate, and family support was the highest score. In types of support, appraisal support was the highest score. The level of morale was slightly lower than moderate, and the score of social support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morale. In general characteristics, severa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ocial support and morale.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morale was material support by family and the variance was 19.6%. A combination of material support by family, emotional support by relatives,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perceived health, level

of intimacy with one's children, and material support by friends account for 43.3% of the variance in morale of the elderly. **Conclusion:** To increase the morale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material support by family and relatives.

**Key words :** Social Support, Moral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Yang-Gyeong

*Departmen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an 2-20, Geumam-dong, Duckjin-gu, Chonju, Chonbuk 565-701, Korea*

*Tel: +82-63-831-6377 Fax: +82-63-270-3127 E-mail: yoo0704@hotmail.com*